

제목	EU, “도로교통의 미래” 보고서 발간		
거점명	브뤼셀	제출일	2019.07.05
내용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EU JRC)는 최근 “도로교통의 미래-자동화, 커넥티비티, 저탄소 및 공유 모빌리티의 영향(The Future of Road Transport-Implications of Automated, Connected, Low-carbon and Shared mobility)”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동시에 공유 중심적인 교통 시스템이 구축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혁신 기술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개선된 거버넌스,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도로교통 현황 1995년에서 2015년까지 EU 28개국에서 측정된 여객운송* 총 값은 23.8% 증가한 6조 602억이며, 앞으로도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객운송(passenger-kilometres) : 여행객수에 비행거리를 곱하여 운송규모를 알려주는 지표 EU 내 도로 여객운송 규모는 2010년-2030년 사이에 16%, 2010년-2050년 사이에 30%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화물운송은 2030년까지 33%, 2050년까지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50년경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약 84%가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이며, 인구의 1/3은 6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교통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및 인명사고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영향 및 해결방안 이와 같은 문제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 차량 수요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되며, 교통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력 및 핵심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 디지털 보안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교통수단(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으로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특히 대도시의 경우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개발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적합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적인 특정 기		

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이에 동 보고서는 “유럽 리빙 랩(European living lab)”, 즉, 유럽 내 ‘일상 생활의 실험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공, 기업 및 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 모빌리티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유럽 내 연구결과 공유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유럽 리빙 랩(European living lab) 네트워크>



비고

<https://ec.europa.eu/jrc/en/news/future-road-transport-what-we-will-drive-if-we-still-drive-all>